



천운 스님은 팔순이 얼마 안 남았지만, 한달의 절반 이상을 전국의 사찰과 수행단체에서 법문을 한다. 광주 향림사 법당에서 포행을 하고 있는 천운 스님.

“세상 돌아가는 것 모르면 포교도 못해”



큰스님 편안하십니까

천운 스님 (대흥사 조실)

3년전, 광주 주재기자로 부임받아 호남불교 현장을 누비는데 유독 노스님 한분이 눈에 띄기 시작했다. 노스님은 항상 얼굴에 인자한 미소가 가득했고, 불교행사장에서 늘 볼 수 있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행사장에 노스님이 계시지 않으면 허전했다. 노스님이 계시는 것만으로도 증명법사가 되었던 것이다.

그 노스님이 바로 광주 향림사에 주석하고 있는 천운상원(天雲尙遠, 대흥사 조실) 스님이다. 물론 원로의원인 스님을 몰랐던 것은 아니다. 그러나 광주에 와서 취재차 곳곳을 다니다보니 포교를 위한 노스님의 활동이 경이로웠다.

향림사는 종무소를 지나면 바로 천운 스님이 거처하는 방이 있다. 신도들이 종무소에 들르면 누구나 만날 수 있도록 배려한듯하다. 스님 방에 들어서면 사방을 에워싼 책이 방문객의 기를 죽인다.

“대승불교가 됩니까. 상구보리 하화중생 아닙니까. 참선도 하고, 경경도 하고, 포교를 위해 책도 봐야합니다.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면 말할 수 없습니다.”

지역에서 천운 스님은 ‘광주불교의 신화’로 불린다. 37년 전, 광주의 어느 사찰에서 천운 스님에게 법문을 요청했다. 그날 받은 거마비로 번두리에 터를 잡았다. 오늘의 향림사다. 스님에게 포교는 곧 수행이었다. 한문경전을 한글화했고, 불교의식을 현대화했다. 또 어려운 이들이 있으면 있는대로 깨내어 주었다.

그때는 오갈 데 없는 아이들이 많았다. 그런 아이들을 거두어 부처님 법당을 열어 아이들 방을 만들어 함께

살았다. 이렇게 향림사를 거쳐간 아이들이 200여명에 이른다. 모두들 사회의 훌륭한 일원이 되어 많은 바 소임을 다하고 있다. 그중에는 출가 사문만 20여명이나 된다. 얼마 전 출판기념으로 문중을 정리해 보니 상좌가 70여명, 유람상좌가 100여명 가까이 됐다. 그래서 천운 스님은 한때 ‘중 만드느라 공장장’이란 별칭을 얻기도 했다.

향림사 내에 있는 복지법인 향림원에는 노인과 장애인 50여명이 생활하고 있다. 요즘은 부모가 없거나 함께 살지 못하는 아이들을 위한 아동복지시설을 건립중이다.

37년 전 광주에 뿌리내린 후 오갈데 없는 아이들 거두고 유치원·대학 설립 등 교육봉사 하루 멀다하고 전국 돌며 법문

불교 불모지 호남불교를 살리기 위해 스님은 교육봉사에 주력했다. 승속을 떠나 배우겠다고 하면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불교 유치원과 광주 불교대학을 설립해 포교

와 정법세우기에 혼신을 기울였다. 연로해지면서 스님은 산책삼아 유치원 아이들을 찾곤 한다.

친구들과 놀던 아이 하나가 스님을 붙잡고 묻는다. “스님! 스님은 왜 머리가 없어요?”

“머리가 없어야 스님인지 아닌지 알 수 있잖아.” “스님은 왜 절에서 살아요?” “스님은 어째 옷이 똑 같아요?”

여기저기 아이들의 질문이 쏟아진다.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하나하나 대답해주는 노스님 모습이 정겹다.

“아이들 마음이 바로 부처 마음입니다. 그런데 커가면서 중생의 업이 나타나요. 업이 녹여지면 본래 부처자리가 드러납니다. 수행으로 업을 녹여야 해요.” 스님은 여기 저기서 들어오는 법문요청을 거절하



유치원생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천운 스님.



천운 스님이 화순 기원정사 대웅전 부처님의 복장물을 봉안하고 있다.

지 못한다. 그래서 세수 팔순이 가까운 노장이건만 여전히 현역이다. 한달이면 보통가량을 전국의 사찰과 수행단체에서 법을 설한다.

수행과 포교를 향한 마르지 않는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 스님은 새벽예불이 끝나면 <금강경>독송을 빠뜨리지 않는다. 은사 지암 스님이 그러했다. 하루 4독을 하시는 은사스님은 출타시에도 경을 보자기에 싸서 가지고 다니며 장소를 불문하고 독송했다. 독송하는 모습이 어찌나 진지하고 간절하던지. 그 대묘가 부처님 모습이었다. 은사스님을 따라 스님도 평생을 두고 <금강경> 독송을 생활화하고 있다. 이제는 향림사가 풍이 되어 제자들에게 이어지고 있다.

하루 전날 평창 월정사에서 열린 한암 스님 추모 대제에 참석차 면길을 다녀온 스님은 또 점심 무렵 여장을 행킨다. 화순에 건립되는 절에서 부처님 복장의식을 정해왔던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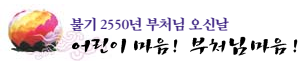
“스님, 힘들지 않으세요?” “신심으로 사는데 어렵고 힘든 생각이 어디에 붙어요. 쓸데없는 생각이 일어나지 않으면 지혜는 끝없이 나오기 마련입니다. 그러니 신심으로 일하세요.”

글=이준엽 기자 · 사진=박재환 기자

조계종 포교대상 등 여러차례 賞 수상

천운 스님은 1929년 전북 고창에서 태어났으나 한의사였던 부친이 3년 늦게 출생신고를 했다. 할아버지의 임명으로 서당에서 한학을 공부하던 중, 학교에 다니던 친구들이 부러워 중학교에 가고자 집을 나왔다. 1946년 내장사에서 박한영 스님을 만나 시봉을 하고 월정사에서 지암 스님을 은사로 출가했다. 선운사 대교과를 수료하고 제방선원에서 수선정진했다. 화엄사, 대

흥사 등 교구본사 주지와 총무원 교무부장을 역임했다. 교화활동을 인정받아 조계종 포교대상을 두 차례나 수상하는 등 각종 포교관련 상을 받았다. 2001년 조계종 원로의원으로 추대되었으며 현재 해남 대흥사와 광주 향림사 조실, 정광종·고교 이사장, 사회복지법인 향림원 원장 등을 맡고 있다. 저서로 <봐서 행 하는길> <알고가는 길> <끝없는 행원> <더불어 사는 삶> 등 다수가 있다.



상표 등록

미수타

반도체 안전 전자 인증

그동안 보내주신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 유사품에 주의 하십시오.

긴급 서비스
기술 지원 팀
011 · 9996 · 8872

25/1, 12/1의 절약은 작은 변화가 아닙니다. 전력을 많이 사용하시면서 안전장치를 하기 보다는 근본적으로 적게 사용하는 것이 운용과 안전에 더욱 경제적입니다.

사용량 (kWh)	요금(원)	사용량 (kWh)	요금(원)
50	2,310	260	32,260
60	3,200	270	34,130
70	4,100	280	36,020
80	4,990	290	37,900
90	5,880	300	39,780
100	6,780	310	41,720
110	7,690	320	43,740
120	8,600	330	45,820
130	9,510	340	47,960
140	10,430	350	50,160
150	11,360	360	52,420
160	12,300	370	54,740
170	13,250	380	57,120
180	14,210	390	59,560
190	15,180	400	62,060
200	16,160	410	64,620
210	17,150	420	67,240
220	18,150	430	69,920
230	19,160	440	72,660
240	20,180	450	75,460
250	21,210	460	78,320
		470	81,240
		480	84,220
		490	87,260
		500	90,360
		510	93,520
		520	96,740
		530	100,020
		540	103,360
		550	106,760
		560	110,220
		570	113,740
		580	117,320
		590	120,960
		600	124,660
		610	128,420
		620	132,240
		630	136,120
		640	140,060
		650	144,060
		660	148,120
		670	152,240
		680	156,420
		690	160,660
		700	164,960
		710	169,320
		720	173,740
		730	178,220
		740	182,760
		750	187,360
		760	192,020
		770	196,740
		780	201,520
		790	206,360
		800	211,260
		810	216,220
		820	221,240
		830	226,320
		840	231,460
		850	236,660
		860	241,920
		870	247,240
		880	252,620
		890	258,060
		900	263,560
		910	269,120
		920	274,740
		930	280,420
		940	286,160
		950	291,960
		960	297,820
		970	303,740
		980	309,720
		990	315,760
		1000	321,860
		1010	328,020
		1020	334,240
		1030	340,520
		1040	346,860
		1050	353,260
		1060	359,720
		1070	366,240
		1080	372,820
		1090	379,460
		1100	386,160
		1110	392,920
		1120	399,740
		1130	406,620
		1140	413,560
		1150	420,560
		1160	427,620
		1170	434,740
		1180	441,920
		1190	449,160
		1200	456,460

전자전구 사용 전력
1
25배 절약
일반전구 사용 전력

전화 031)792-8867~8 팩스 031)791-8871

항상 진실과 희망만을 말하세요

천운 스님의 가르침

올해도 어김없이 사월 초파일 부처님오신날을 맞습니다. 금년이 불기(佛紀) 2550년이지만 현재 우리가 쓰는 불기는 부처님이 열반에 드신 해를 기점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따라서 부처님이 80년을 사셨으니 부처님 오신지 어언 2630년 되는 셈입니다.

우리는 흔히 인도에서 태어나신 부처님 가르침이 이 땅에 전해진 것은 여러나라와 중국을 거쳐 오게 되었고, 다시 일본으로 전해졌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교가 중국을 거쳐 전해지기 이전에 이미 한반도에도 부처님 가르침이 전해되었습니다.

본래 인도 왕족이었던 허 황후가 서기 48년 불상을 모시고 백길로 가야에 온 것은 학계에서도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인도의 승려였던 마라난타 존자가 384년 법성포로 들어와 포교를 시작했고, 이로써 화려했던 백제불교가 시작되었습니다. 제주도에는 한라산 영실에 존자암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부처님 제세 시 제자였던 발타라 존자가 한라산에서 수행했다고 전해지며, 지금도 부도가 남아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 불교가 전해진 것은 1600년 전 중국을 거쳐 고구려(372년) 소수림왕 2년에 전해진 것이 아니라, 2600년 전 부처님 당시로 거슬러 올라가는 것입니다.

당시의 불교는 부처님 열반이후 부처님 제자가 그의 제자에게 가르침을 온전히 전하는 진인(眞人) 불교였습니다.

고구려 이전, 이 땅에 불교가 처음 들어왔을 때에도 한문으로 쓰여진 경전에 의존하기보다 부처님 가르침 그대로인 진인불교였을 것입니다.

오늘 또다시 맞이하는 초파일에 진인불교를 생각해봅니다. 문자에 갇혀있는 불교가 아니라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이 살아있는 불교를 말합니다.

36년 전, 광주에 항립사를 창건할 당시 주위에서 모두를 말렸습니다. 나무 하나 없이 민가와 함께 있는 절에 누가 오겠냐고요. 그렇지만 부처님은 산속에 계시지 않았고, 길에서 나서서 길에서 가르침을 퍼졌고 길에서 가셨습니다. 부처님 가르침은 속세를 떠나서 있는 것이 아니라 이처럼 사람들이 살고 있는 마음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문 경전을 우리말로 바꾸었고, 못 모르는 경전을 읽기보다 천불기를 함께 불렀습니다. 참선만이 제일이라는 생각을 돌려 나보다 어려운 이웃을 생각하고, 함께 사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항립사에는 오래전부터 오갈 데 없는 노인과 장애인, 고아들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오늘도 절과 복지시설에서 먹고 자는 대중이 150여명에 이릅니다. 신도들의 보시와 봉사로 이제껏 한번도 굶지 않았고, 누구에게 비굴해하지 않았습다.

한국불교 역사에서 조선시대는 참으로 곤혹스런 시대였습니다. 어려웠던 시기였지만 선지식들의 간절한 수행과 포교로 불교의 맥은 이어져 왔습니다. 그렇지만 큰 힘은 어머니들이었습니다. 흔히들 치마불교라고 하지만 어머니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진 불교는 흔들리지 않았습다. 참선을 한다고 앉지도 못했고, 글을 모르기에 경전을 읽지도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어머니들의 입에서는 한시도 염불과 주력이 끊이지 않았습다. 어려운 이들이 있으면 '나무아미타불' 하며 순가락하나 더 놓고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인불교입니다.

공부 했나 안 했나
화내는 것 보면 알아
스스로 마음 다스리며
자비 실천하세요



천운 스님은 "모든 허물은 자신에게 있음을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선, 염불, 주력, 포교, 가람수호는 오늘의 불자들이 행해야할 5대수행입니다. 불자라면 이 가운데 하나라도 선택해 간절히 해 나가야합니다.

그리고 입으로 짓는 구입(口業)을 경계해야 합니다. 요즘 사람들의 문제를 살펴 보면 입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입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는 <천수경> 십악참회에라도 알 수 있습니다. 열 가지 악업을 참회하는데 망어(妄語), 기어(綺語), 양설(兩舌), 약구(惡口) 등 4가지가 바로 입과 관련된 것입니다. 구입을 막는 방법으로 염불과 주력이 최고입니다.

공부를 했고 안했고는 화내는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수행이 어느 정도 되었는가를 보려면 얼마나 화를 내지 않는가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살면서 화를 내지 않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지내고 보면 모든 허물은 자신에게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기에 남을 원망해서는 더욱 안됩니다.

입으로 진실된 말을 하고, 자비실천을 수행하면 성내는 마음은 저절로 멀어지게 되어있습니다.

금년은 초파일과 어린이날이 겹칩습니다. 어린이는 마음에 때가 없이 순수합니다. 깨끗한 거울과 같습니다. 아이들은 어른이 하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여 따라서 합니다. 그러나 아이들 앞에서 부모들이 싸우거나, 못살겠다며 부정적인 말을 해서서는 안됩니다.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맑은 마음의 거울에 비쳐져서 언젠가 그대로 따라하기 때문입니다. 항상 희망적인 말을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초파일을 맞아 진인불교를 한마디로 요약한 부처님의 가르침(佛通傳)을 소개합니다.

제야막자 증선봉행(諸惡莫作 衆善奉行) : 모든 악을 짓지 말고 선을 받들어 행하라
자정기의 시제불교(自淨其意 是謂佛敎) : 스스로의 마음을 다스리면 이것이 곧 불교다

정리=이준업 기자 · 사진=박재완 기자

행복을 찾아주는 부처님 말씀 <63>



부처님이 보낸 편지

나는 고타마 붓다, 세상 사람들이 썩가모니 불세존이라 부르는 이요.

머칠 전 정신은 나의 하루 일과가 궁금하다는 편지를 보내왔소. 나의 하루 일과는 너무나 단조롭게 그리 흥미를 끌지 못할 것인데 내가 무얼 말해주면 좋을까 잠시 고민하였소.

나는 대체로 아침에 해 뜨기 전에 눈을 뜨고, 그리고 밤사이 충분한 휴식으로 맑아진 눈을 들어 세상을 두루두루 살펴보고, 세상에는 단 한 순간도 끊이지 않고 사람들의 신음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소. 이른 아침 세상을 두루 살피면서 그날 꼭 내야 할 일을 할 곳을 찾아내는 것이 내 하루의 첫 번째 일과요.

그냥 내버려두면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을 저지른 사람에게도 내가 서둘러 달려가오. 사람을 100명 가까이나 죽이고 제 어머니에게마저 칼을 휘두르려던 앙골리마라가 바로 그런 예요. 또는 자기가 너무 보잘 것 없어 차마 내게 다가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역시 내가 먼저 그들에게 다가가오. 그러지 않고는 그들과는 절대로 만날 수 없기 때문이요.

를 먹는 아난에게 도움을 준 경우가 바로 이때요.

그렇게 뜨거운 한 낮이 지나면 하루 일과를 마친 재가신자들이 나를 찾아오는 시간이 되오. 고된 노동으로 지칠 대로 지친 이들을 만나면 내 가슴은 우정으로 넘쳐나오. 나는 대체로 삼보에 대한 믿음을 가꿀 것, 그리고 오계를 항상 기억하고 지킬 것, 쌀 한 톨이라도 이웃과 나눌 것, 선업을 지어서 천상에 태어나도 이런 일들은 다 지혜를 키우기 위한 밑거름이 된다는 내용의 법문을 재가신자들에게 들려주오.

재미있는 비유 이야기도 들려주는데 그러면 법문을 어렵게 느끼면 사람들도 내 말 뜻을 금방 알아채곤 하오. 그리하여 마음이 크게 열리고 지혜가 향상되는 이들이 나오면 나는 그때를 기다려서 괴로움, 집기, 멸망, 괴로움을 떨하는 길의 사성제를 들려주오.

어느덧 오후 6시 쯤 되면 이제 전적으로 출가 수행자들과 함께 하는 시간이오. 그들은 중일 명상과 깊은 사색을 통해 자신들이 나아간 경지를 내게 보고하거나 궁금한 내용을 묻기도 하오. 고요한 가운데 법의 대화가 오가는 그 정경은 정말 진지하고 거룩하기 그지없소.

“많은 이들이 나의 하루 일과 떠올리며 자신 돌아보는 시간 갖고 성불하기를”

하지만 평소 착하게 살아왔고 그 마음이 유순하고 열려 있는 사람이라면 그들이 내게 찾아오도록 기다리기도 하오. 나의 가장 독실한 재가 신자였던 금고독장자나 수행에 임격하였던 가섭 비구 같은 이는 이른 새벽 인적이 뜸한 공동묘지에서 만나 마음을 주고받았던 이들이오.

전날 아침공양 약속을 한 경우가 아니라면 대체로 나의 탁발은 내가 그날 만나야 할 사람이 있는 곳으로 방향이 정해지오. 나는 언제나 맨발로 다리고 있소. 나와 만날 사람을 떠올리며 생명의 기운이 넘쳐나는 아침의 대지에 맨발을 내딛을 때의 그 기쁨은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느낄 수 없을 것이오.

사람들이 어떤 음식을 발우에 넣든 나는 개의치 않소. 그 자리는 나와 사람들이 만나는 거룩한 시간이기 때문에 음식에 신경을 쓸 수가 없소. 절에 돌아와 편편히 음식을 먹은 뒤에 제자들에게 밥을 설하면 이것으로 나의 오전 일과는 대체로 끝이 나오.

어떨 때는 낮에 아주 잠깐 휴식을 취하기도 하오. 그리고 깨운해진 마음으로 이번에는 출가제자들 중에 내 도움이 필요한 자들은 없는지를 관찰하오. 탁발을 하러 나갔다가 불변을 당하거나 여자들의 간청을 뿌리치지 못하고 예

밤10시가 되어 다들 자기 처소로 돌아가면 이제 나는 조용히 선정에 잠기는데 이때는 하늘의 신들이 내게 다가와 법문을 듣거나 궁금한 것을 물어보는 시간이오.

내가 언제 잠드는지 궁금하오? 보통 새벽 2시부터 6시 사이가 나의 취침시간이기는 하지만 당시처럼 잠꼬대를 하거나 악몽에 시달리지 않소. 나는 생각을 고요히 환근데 모아 선정 속에서 깊은 휴식을 취하고 있소.

나의 하루는 오로지 사람들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들에게 바른 길을 보여주는 것으로 다 채워지고 있소. 나는 이 일을 80세로 생을 마감할 때까지 쉬지 않았소.

올해 5월5일 내 생일에는 예년과 다름없어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위해 연등을 밝힐 것이오. 그날 사람들이 나의 하루 일과를 떠올리며 자신의 하루를 돌아보는 시간을 갖기를 바랄 뿐이오. 그리하여 내가 부처 되었듯 그들도 속히 부처되기를...

◆이 글은 <현대인을 위한 붓다의 가르침> (안양규 지음, 예시이문) 중 '9. 붓다의 하루일과'를 전적으로 참고한 것임을 밝힙니다.

■ 이미령(중국경원역경연구원)

“천년전 마음으로 불사에 동참합니다”

옛 신라인은 수 많은 불교 문화유산을 남겼습니다. 아직도 이 땅 곳곳에 우리 가슴을 따뜻하게 하는 신라인의 불심과 손길을 접할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석굴암은 불교신앙을 대표하는 부처님 상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저희 동국석재조각예술원은 이러한 신라인의 마음으로 소임을 다합니다. 천년 전 신라인의 마음으로 불사에 동참합니다.

문화재청 등록 조각기능보유자

석재조각의 대가 동국석재조각예술원
전화 031)531-5349 / 휴대폰 010-7474-5349

청운 스님 진품 달마도

귀의 삼보 하유고
청운 스님께서 직접그리신 달마도는 오랜 정진을 통한 선(禪)기가 녹아 있습니다. 달마도는 인간의 근본 마음을 밝혀줌으로써 삶의 모든 어두운 불행의 기운을 사라지게 만들어 밝고 행복한 삶으로 바꿔줍니다. 청운스님의 영적 힘을 가진 진품 달마도를 소장하시고 소원성취도 이루십시오.

※ 달마도(그림)만 구매 가능합니다. 각 호수를 불러주세요. 10점이상 구매시 사찰영을 새겨 드립니다.

■ 달마 3호-그림: 30×40cm
■ 달마 4호-그림: 40×50cm

■ 달마 6호-그림: 35×45cm
액자: 47×64cm

■ 달마 8호-그림: 35×68cm
액자: 47×88cm

■ 달마 10호-그림: 45×75cm
액자: 58×94cm

● 구입문의 : 불교용품 전문기획 달마 SHOP 051) 851-5535
입금계좌 : 농협 949-02-315451 (정정애)